

# 1920년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부하린적 대안의 문제\*

권 회 영

## I. 머리 말

소련의 현실 사회주의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부하린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레닌에 의해 가장 주목받은 볼셰비키당의 이론가로서 또 레닌 이후 1920년대 신경제정책(NEP)의 이론가로서 부하린은 짜르시대의 낙후된 후진 러시아경제의 유산 속에서 전쟁과 혁명, 그리고 내전기를 거치면서 폐허화된 소련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정력적인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다.

소련의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오늘날 사회주의 건설에 대하여 부하린이 생각했던 이론적 문제제기는 이미 우리의 관심밖으로 사라져 버린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련의 1920년대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해방을 목표로 추구된 혁명이 어떻게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억압하는 체제의 성립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과연 어떠한 대안이 러시아의 역사적 유산 속에서 가능했던 것인가?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의 건설에서 부하린적 대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부하린적 대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 대안중에서도 “가장 열려있고 따라서 스탈린적 바리안트에 가장 잘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sup>1)</sup> 따라서 현실적으로 진행된 소련의 역사를 결정론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계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소련에서는 부하린이 새롭게 조명을 받아 부하린의 저작이 다시 발행되고 있으며 부하린에 관하여 발표되고 있는 논문이 적지 않다. 이는 소련 공산당이 자유화와 개방주의 노선을 선택한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부하린의 복권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는 1987년 11월 2일에 행해진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10월과 페레스트로이카: 혁명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연설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여기에서 스탈린 권력장악 이후 처음으로 공식연설에서 부하린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1987년 11월에 때를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V. P. Danilov, “20-e gody: NEP i Bor'ba Al'ternativ”, *Voprosy Istorii*, No. 9, 1988, p. 8.

맞추어 부하린의 미망인 라리나(Larina)는 고르바초프에게 부하린의 복권을 청원하는 편지를 내었으며 「오고노크(Ogoniok)」지(誌)에는 라리나와의 인터뷰가 실렸다. 「모스크바 통신(Moskovskie Novosti)」은 1987년 12월 6일 부하린의 유서를 공개하였고 드디어 1988년 2월 4일에 부하린은 소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립코프(Rykov), 라코프스키(Rakovsky)와 함께 복권되었다. 부하린은 1988년 5월 10일 소련 과학 아카데미 의장단의 결정에 의하여 아카데미 회원의 자격도 찾았으며 1988년 6월 21일에는 소련 공산당의 당적을 되찾게 된다.<sup>2)</sup> 부하린의 복권은 소련학계에서 부하린에 대한 새로운 조명으로 뒷받침되었다. 소련의 주요 역사학 잡지에서 부하린에 대한 소개가 있게 되었다. 1988년 1월에 당이론지 「코무니스트(Kommunist)」에 부하린의 1929년 논문 "Politicheskoe Zaveshchanie Lenina"가 게재되었고 주요 역사학 잡지에 부하린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고<sup>3)</sup> 부하린에 대한 좌담회가 열렸다.<sup>4)</sup> 1988년은 이러한 점에서 부하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는 고르바초프 등의 지도부가 부하린의 사상 속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추구하는 이상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주지하다시피 소련 지도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찾아 보려는 소련 공산당 개혁파의 노력은 실패로 귀착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어떠한 성과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보다는 공산당체제를 전복시킴으로써 끝을 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세비키 운동에 결부된 어떠한 형태의 사회주의도 현재 소련해체 이후의 러시아의 새로운 전망과 연결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록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로 귀착되고 소련은 해체되었지만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하여 다시금 복권되고 역사의 조명을 다시 받게 된 부하린은 페레스트로이카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역사학적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sup>5)</sup>

2) 줄고, "페레스트로이카와 불세비키역사의 재해석", 「역사비평」, 1990 봄호, 186쪽.

3) L. K. Shikarenkov, "Nikolai Ivanovich Bukharin", *Voprosy Istorii*, 1988, No. 7, s. 50-78. G. A. Bordiugov & V. A. Kozlov, "Povorot 1929 goda i Alternativa Bukharina", *Voprosy Istorii KPSS*, 1988, No. 8, s. 15-33.

4) "Kruglyi Stol: Sovetskii Soiuz v 20-e Gody", *Voprosy Istorii*, 1988, No. 9, pp. 3-58. "Kruglyi Stol: Sovetskii Soiuz v 30-e God-y", *Voprosy Istorii*, 1988, No. 12, s. 3-30.

5) 그러나 본고는 부하린에 대한 자세한 전기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 부하린에 대한 전기는 Cohen에 의한 고전적인 저작이 있기 때문이다. (S. F. Cohen, *Bukharin and the Bolshevik Revol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495 p.) 본고는 단지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와 공산주의의 붕괴를 통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부하린 사상이 가지는 의미를 재음미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1920년대의 부하린이나 페레스트로이카나 양자가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적 초이성의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던 국가권력에 대하여 인간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숨낼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소련 사회주의의 실패는 소련 사회주의가 추구하려고 노력하였던 근대화의 문제가 소련 역사상에서 어떻게 위치지워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제기시킬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점에서는 근대화를 단지 산업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소련 사회주의 및 부하린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 II. 1920년대 소련과 사회주의

1917년 볼셰비키들은 혁명을 통하여 짜르 전제정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 국가는 소비에트 국가였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볼셰비키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이 국가의 성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볼셰비키의 권력장악으로 인하여 세워진 국가는 어떠한 국가인가? 그것이 자본주의의 부르조아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인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는 어떠한 점에서 자본주의의 국가들과 구별되는가?

소비에트 국가의 탄생은 러시아의 볼셰비키에게 그동안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적인 응답의 필요성이 없었던 문제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내었다. 그것은 그동안 운동으로 존재하였던 공산주의가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 지배권력으로 전화되었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이었다. 볼셰비키는 혁명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것은 볼셰비키에게는 현기증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볼셰비키에게 주어진 것은 이 국가권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볼셰비키는 마르크스의 가르침에 따라 국가권력의 약화를 전망하면서 국가기구를 파괴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활용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트를 해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전위당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성격이 일변되어 이제 국가는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옹호와 정당성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갈등은 적어도 한번에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레닌이 혁명을 앞두고 집필한 논문 『국가와 혁명』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이상적인 국가관은 실제로 볼셰비키가 국가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는 많은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미지와 실제 현실 사이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두 개의 유토피아 사이의 갈등이 밀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권력으로서의 볼셰비키가 구상하는 사회주의란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과 그를 위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한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국가이기도 하여야 했다. 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보여준 이상이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볼셰비키적 담론은 동시에 리바이어던적인 유토피아를 담고 있었다. 이 담론 하에서는 주체의 무오류성과 윤리의 완벽함이 전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역사적 형이상학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을 추구하는 국가기구가 예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담론은 이미 마르크스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에 역사발전에 대한 낙관, 그리고 현존에 대한 강한 부정은 우선 보기에 대립적인 이 두 가지 경향의 유토피아가 그의 담론의 체계 내에 나란히 때로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존재하게 하였다. 결국 해방과 진보, 역사적 선이 마르크스주의의 중요한 형이상학적인 전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볼셰비키는 마르크스주의—그리고 레닌의 해석—을 가지고 러시아의 토양에서 처음으로 역사적 실험을 하게 되었다. 실험의 첫 단계에서는 해방의 구조를 따라서 거의 무정부적 상태로 대중의 에너지의 분출이 이루어졌다. 자본가들에 대하여 노동자 통제가 실시되었으며, 농민에게는 토지가 무상으로 분여되었고, 병사들은 징집에서 해제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구 짜르의 제정하에서 억압받던 계급에 대한 이러한 해방은 그 자체로서 역사적인 진보로 해석되었다.

구 국가기구에 대신하여 새로이 등장한 새로운 국가기구도 이러한 해방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역사적 진보를 의미하였다. 각지에는 소비에트가 새로운 국가권력 기구로 등장하였으며 권력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러시아는 전국에 걸친 소비에트의 그물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방'들과 동시에 러시아에는 새로운 억압과 통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볼셰비키가 행하는 역사적 선은 다른 선택을 용납하지 않았다. 해방은 격렬한 계급투쟁의 그리고 전쟁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투쟁과 전쟁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선으로 인식되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흔히들 NEP와 그를 선행하였던 전시 공산주의를 대비하면서 NEP가 소련이 걸어갔어야 할 역사적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시 공산주의는 사실상 볼셰비키들에게 공산주의의 전범으로 인식되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초기 볼셰비키 가운데서는 오히려 NEP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NEP가 시행될 때에 이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사같은 분위기의” 당의 신규당원 대중은 공산주의로의 조속한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sup>6)</sup>

이러한 문제들은 NEP와 더불어 소련의 지도부가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 우선 NEP는 볼셰비키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와도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NEP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떻게 NEP를 간직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 필요했는가와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1920년대의 문제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NEP와 관련된 위험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뿌리 부르조아지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이다.<sup>7)</sup>

따라서 우리는 NEP의 시작에서 NEP가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인 1921-1928년이 소련의 역사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아직 볼셰비키의 담론이 여러 대안들에 대하여 열려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강한 통제와 당의 전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의 이미지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볼셰비키당 내의 지도부를 볼 때 어느 누구도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때 아직 통제불능의 리바이어던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에 대안이 논의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1920년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부하린의 대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차적으로 당대에 직면하고 있던 문제, 보다 간단히 말한다면,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는데 부하린의 대안이 얼마나 적절한 것이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1920년대 말에 제시되었던 약 세 가지의 대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관점 하에서 부하린의 대안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부하린적 사회주의가 근대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어떻게 상응하고 대립되는가 하는 점을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부하린의 대안이 소련 사회의 질적 변화와 근대화에 얼마만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와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부하린을 비롯한 볼셰비키가 이상으로 생각한 근대화를 넘어선 근대화와 가능으로서의 서구의 근대화가 어떠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6) V. P. Danilov, “20-e Gody”, *Voprosy Istorii*, 1988, No. 9, s. 5.

7) G. A. Bordiugov & V. A. Kozlov, “Povorot 1929 goda i Alternativa Bukharina”, *Voprosy Istorii KPSS*, 1988, No. 8, s. 15.

### III. 부하린 대안의 검토

#### 1. NEP의 문제와 부하린 노선

우선 1921년 3월 농촌에서의 곡물 강제공출제도로부터 현물세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하여 시작된 NEP가 어떠한 숙제를 소비에트 지도자들에게 부과하였는가? 부하린은 이 NEP의 도입이 내전으로 극히 저하되어 있던 소비에트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전시 공산주의의 목적은 방위에 있었고 따라서 문제는 탈취하는 것이지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공급의 균형은 경제적 관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상호 군사적 이해”에 입각해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빵을 필요로 했고 농민은 토지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전이 끝난 후 이러한 공급관계는 변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소부르조아적 경제라는 조건에서 이제는 생산력을 증대시켜야만 하였다. 이러한 의도 하에서 NEP는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 비유되었다. 그리고 전략적 작전이 성공을 하면 방향타를 돌리는데 그것은 “점차로 경제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사적인 대경제를 폐지하고 소생산자를 대기업의 지도에 경제적으로 복속시키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소비에트의 경제가 내전 이후에도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NEP의 기본적인 목표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생산력의 회복에 있었지만 이러한 목표는 소비에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충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가 불세비키가 기대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실현시키기에 대단히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불세비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었다. 레닌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그 경제적 구성에 있어서 국가독점자본주의와 다를 것이 없었다. 단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휘부를 장악하기만 한다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곧 사회주의였다.

그러나 혁명과 내전 후의 러시아는 농민이 지배적인 농업사회였다. 산업은 급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농업은 혁명을 통하여 대토지소유제를 철폐하기는 하였지만 그 대신에 자영농이 중심이 되는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소비에트 국가는 이러한 농민들과의 관계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소련은 주로 자체의 능력으로 산업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문제를 둘러싸고 부하린-프레오브라젠스키의 논쟁이 있

8) Nikolai Boukharine, "La Nouvelle Orientation de la Politique Economique", *Oeuvres Choisies en un volume*, (Moscow: Edition du Progrès, 1990), pp. 63-71.

게 된다. 문제의 초점은 1923-27년 경에 있어 경제정책의 방법과 그것이 미칠 사회적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논의는 프레오브라젠스키를 대표로 하는 좌파들이 좀더 솔직하게 농민의 잉여를 수탈하는 방법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할 것을 주장한데 비하여 스탈린-부하린의 우파는 내부 시장확대를 통하여 완만한 방법으로 산업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프레오브라젠스키는 이미 NEP가 시작되면서부터 급속한 산업화를 주장하여 마치 자본주의의 초기에 있었던 원시적 축적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부문도 농민의 수탈에 의한 사회주의적 원시적 축적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1926년에 발간된 『신경제학』은 이러한 입장을 잘 정리한 책이었다. 그러나 부하린은 여기에 심각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우선 사회주의적 원축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았다.<sup>10)</sup> 그는 그러한 법칙을 레닌의 용어에 따라 '어린애같은 장난'이라고 몰아 붙였다.<sup>11)</sup> 부하린은 자본의 전사로서의 원시적 축적을 사회주의에 적용하는 것은 오류이며 그것은 국유부문과 사적 농업부문과의 관계일 뿐이라고 하였던 것이다.<sup>12)</sup> 부하린은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적인 오류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의지하고 있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이라고 하는 *smychka*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부하린은 농민과 노동계급의 동맹관계를 평행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농민을 지도한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소련은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의 국가라고 하였다.<sup>13)</sup> 그렇기에 NEP는

9) 이 문제에 대하여 Robert Bideleux는 소련의 국유부문이 농민경제의 부담 위에 축적을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비교적 생산적인 농민부문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이며, 농업부문이 빈약할수록 국유부문이 농민의 희생위에 축적을 의존하는 것은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것을 가난한 사회들에서의 공산주의 실험이 보여주었다고 한다. *Communism and Development* (New York: Methuen & Co., 1987), p. 112.

10) 원시적 축적을 마르크스의 개념에 의하여 판단한다면 마르크스는 그의 자본론에서 "노동의 그의 외적 조건과 분리시키는 역사적 운동"을 원시적 축적으로 보았다. (K. Marx, *Le Capital*, tome I, Moscou: Edition du Progrès, 1982, p. 680.) 이렇게 볼 때 프레오브라젠스키가 서로 다른 생산양식 간의 부의 이동을 원시적 축적으로 파악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와는 상이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1) N. Bukharin, "K Voprosu O Zakonomernostiakh Perekhodnogo Perioda", *Put' k Sotsializmu*, (Novosibirsk: Nauka, 1990), p. 126.

12) 위의 책, p. 140.

13) "Révélation Nouvelles sur l'Economie Soviétique ou Comment Tuer le Bloc Ouvriers-Paysans", *Oeuvres Choisies en un volume*, (Moscou: Edition du Progrès, 1990), p. 143.

“농민경영의 합리화와 증대하는 수익성 덕분에 프롤레타리아트 국가가 실제로 더 많이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4)</sup> 부하린은 그 때문에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이론이 “황금알을 낳는 닭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5)</sup> 어쨌든 1928년 스탈린이 좌파를 몰아내고 정책을 급선회할 때까지는 불세비키는 황금알을 낳는 닭을 죽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닭에 대한 진정한 공격은 스탈린으로부터 왔다.

1928년에 소련에 초래된 곡물위기는 스탈린이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위기는 근본적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도시의 곡물수요가 늘었는데 비하여 농촌에서부터의 생산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 해의 수확은 사실 작지 않았고 도시에서의 일인당 곡물소비는 농촌의 그것보다도 오히려 높았었다. 스탈린은 이 곡물위기에 부딪혀 농민의 생산을 자극하는 경제적인 방법을 쓰는 대신에 비상수단을 쓰게 되었다.<sup>16)</sup>

이로부터 시작된 곡물의 강제징수라는 비상수단 그리고 그를 이은 강제적 농업집단화는 사실상 황금알을 낳는 닭을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부하린 대안의 진정한 의의는 이러한 스탈린의 폭압정책에 대항하는 거의 유일한 저항이었다는 사실에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근간에 대형컴퓨터를 사용하여 1920년대 소련경제의 대안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H. Hunter & J. M. Szyrmer의 논문이 참고된다.<sup>17)</sup>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콜락의 청산정책은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었다. 1940년 말경에 1920년대의 경향을 기준으로 할 때 고스플란이 예측한 것보다 1500만의 인구가 작았으며 1900만의 인구가 예측보다 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다. 가축생산의 공급은 50%가 감소하였으며 곡물생산은 기대보다도 적었다. 부양인구가 줄었으므로 공업자본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유입은 산업자본 성장을 저해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의 결론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주요한 발견은 1920년대 말에 ‘스탈린 동지의 주위에 뭉친 당 및 당외의 열광자들이 소련경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낭용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반사실적 시나리오들은 만일 대안의 정책들이 채택되었다라면 좀더 큰 산출이 있을 수 있었고 좀더 많은 자본이 더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18)</sup>

14) 위의 글, p. 148.

15) 위의 글, p. 150.

16) R. Bideleux, *Communism and Development* (New York, 1987), p. 118.

17) “Testing Early Soviet Economic Alternatives”, *Slavic Review*, Summer 1991, pp. 251-267.



이러한 논의는 결국 부하린의 대안이 스탈린의 정책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소련은 더 경제적으로 운택하여지고 좀더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며 인민들의 생활도 더 향상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장의 문제는 또한 사회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와 분리되어서는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고 1920년대 부하린의 대안이 스탈린의 대안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주의라는 역사적 대안이 될 수 있었는가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 2. 사회주의 건설과 부하린 노선

러시아의 불세비키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 대안으로 사고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부하린 역시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자본주의보다도 더 우월한 문명을 건설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소련에서 비록 가장 개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하린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방향에서 소련의 문화를 유도하려 하였고 정치적 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문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부하린의 사회주의가 비록 많은 점에서 인간적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단히 협소한 공간 내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그가 문화를 철저히 정치와 계급의 관점에서만 다루려고 하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

당신은 문화적인 질서가 정치로부터 독립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떠한 체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계급구조로부터 벗어나 있는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같은 개념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증명하려는 시도들과 우리는 계속하여 투쟁할 것이다.<sup>19)</sup>

부하린의 이같은 관점이 단지 문화와 정치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려는 데에 있다면 부하린의 논의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로의, 특정한 계급적 관점에서의 문화의 종속과 인텔리의 종속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하린은 후자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18) 위의 글, p. 264.

19) N. Bukharin, "Sud'by Russkoi Intelligentsii", *Pul' k'*, s. 105.

것이다.

사람들이 창작의 자유에 대하여 말할 때 지금 우리에게 왕정주의를 교육할 자유에 대하여 말하거나 생물학의 영역에 있어서 바이탈리즘을 도입하는 것이거나 철학의 영역에서 관념주의자들로 하여금 실체에 관한 칸트풍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같은 자유하에 우리의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는 프라하에서도 일할 수 있고 모스크바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모스크바에서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sup>20)</sup>

부하린이 인텔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마르크스주의로 계무장하라는 것이고 그것 밖에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은 부하린 이데올로기의 다른 개방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체주의적 틀속에서 소비에트 문화를 재조직하려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도록 한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인텔리겐차와의 타협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 인텔리겐차는, 부분적으로는 소련방에 사는 다른 인민 다른 민족의 인텔리겐차들도, 아주 큰 비극을 경험하였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모든 것에서 불세비키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힘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인텔리겐차의 상당 부분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올바른 협력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sup>21)</sup>

그러나 부하린 이데올로기의 강점은 그의 실용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국가권력과 노동계급에 대한 그의 관점, 노동계급의 문화에 대한 고찰이 그의 이데올로기의 열려진 가능성을 보여준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 학부나 대학을 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모두가 붉은 관리인이나 소비에트적인 행정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소비에트 권력의 기관들로부터 가까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노동계급은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다. 노동계급의 주요 부분이 견고하게 통제된 지렛대를 손에 쥐게 될 때 관료제와 관료주의는 자연히 죽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노동자들의 문화수준 향상이 우리 국가기구의 진정한 향상의 전제이다.<sup>22)</sup>

그 때문에 전 사회가 혁명적 열기에 마비되어 가고 있을 때 그는 공산주의자

20) 위의 책, s. 109.

21) 위의 책, p. 110.

22) "Le Léninisme et le Problème de la Révolution Culturelle", *Oeuvres Choisies en un volume*, p. 467.

들의 과제는 “혁명적 정신과 아메리카주의”라는 과감한 공식화를 할 수도 있었다.<sup>23)</sup> 이데올로기적인 순수성에서 볼 때 위험스럽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공식화는 사실상 볼셰비키 이데올로기의 본질적 측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낙후된 러시아를 근대화시키려는 욕구가 이 공식화에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볼셰비키의 이데올로기는 근대화의 이데올로기였다. 부하린은 이러한 볼셰비키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가장 뛰어난 이론가였던 셈이다.

그러나 근대화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부하린주의는 혁명으로 인해 고취된 새로운 사회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압력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레닌의 사후에 실시된 ‘레닌의 등록’시에 24만명의 신입당원들이 생겨났다. 그들 중 92.4%는 노동자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신입당원들이 소비에트 사회에서 일종의 한계선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농촌에서 갖도시로 올라와서 비숙련 및 보조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들에게는 출세주의적 동기가 다른 무엇보다도 강하였다. 그렇기에 사회심리적 구성에서 자유로운 경제적 발전에 의지하기 보다는 스탈린적인 과도적이고 좌파적인 입장이 실행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다.<sup>24)</sup>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하린의 대안은 다소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먼저 어떤 사회주의냐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1920년대 볼셰비키당의 전망은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실현된 스탈린형의 사회주의이며 두 번째는 트로츠키의 좌파 공산주의적 대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하린의 우파 공산주의의 대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크게 보아서 스탈린형의 사회주의는 좌우 양파의 공산주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주의였다. 시구 좌파운동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반권위적 성격은 스탈린형의 사회주의에서 완전히 그 성격을 달리 하였다. 특히 관료주의적 독재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전망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러시아 전제정의 전통과 러시아 인민의 개인적 자각의 부재에 기초한 진시민사회적 윤리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좌우파의 공산주의는 그 전망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전위당에 관한 이들의 사고에서 그 점이 분명히 부각된다. 특히 민

23) 위의 글, p. 482.

24) E. A. Ambratsumov, “NEP i Sobremennost'”, *Voprosy Istorii*, 1988, No. 9, s. 36-37.

주주의적 사고는—그것이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 좌우파의 사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전망은 보다 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가치있는 것이지만 러시아의 현실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부하린과 스탈린이 1923-27년 사이에 좌파그룹을 정치적으로 패배시키는데 기여하게 했던 모든 논의들은 또한 후에 부하린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분파행동에 대해 전일적인 당개념을 강조하였던 부하린도 후에 그 자신이 이전에 주장하였던 이론의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sup>25)</sup>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Mark von Hagen은 소련의 민-군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하린의 대안이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을 밝혔다. “국가와 당의 기구들의 최정상에는 ‘군사화주의자들’이 방위산업 로비를 형성하고 있었고 아래에는 ‘탈농민화론자’들이 쿨락에 대하여 계급전쟁을 하려고 근질거리고 있었다. 양자는 모두 대두되는 군사적 가치들을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형식과 결합함으로써 소비에트 정치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온건하고 점진적이고 좀더 민주적인 대안들은 엄청나게 강한 적에 직면하여 별로 성공의 기회가 없었다.”<sup>26)</sup>

부하린의 사회주의적 대안이 스탈린이나 좌파의 대안과는 달리 보다 ‘인간적인’ 것은 사실이다. 위로부터의 혁명이 없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하린의 대안은 분명히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성적 질서를 건축하여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희망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스탈린 이후의 모든 공산진영에서의 개혁운동의 진전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과연 근대화의 문제에 직면하여 부하린의 대안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는 또한 별개의 문제이다.

### 3. 근대화와 부하린 노선

근대화를 단지 근대경제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만 정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소련의 역사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다. 근대화의 제일요건은 산업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으나 사회 정치적으로는 근대적 인간상의 확립과 근대적 시민정치 공동체의 성립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 R. V. Daniels, “The Left Opposition as an Alternative to Stalinism”, *Slavic Review*, Summer 1991, p. 283.

26)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Evolution of the Soviet Socialist State”, *Slavic Review*, Summer 1991, p. 276.

이러한 점에서 과연 부하린이 스탈린의 바람직한 대안이기는 하겠지만 그 성공의 가능성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소련에서의 혁명 이후의 시민공동체를 이루는데 적합한 이론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Lars T. Lih의 논의는 의미가 있다.<sup>27)</sup> 그는 레닌과 부하린의 글을 정독하며 다음의 논리를 제시한다. "레닌도 부하린도 내전기를 당에 대해서 가능한 타락의 시기로 보지 않았다. 전시 공산주의의 필요한 정책들에 의하여 창조된 환상들은 대개 극복이 되었다. 레닌은 이러한 환상들을 그의 마지막 논문들에서 다룰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부하린은 레닌의 유언을 원래의 후퇴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당에 대한 주위협은 다른 곳에 있었다. 소부르조아적 환경의 감염, 당분열의 위기, 그리고 러시아의 낙후에 의해 접먹은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패배주의였다."

이 논의는 전시 공산주의와 NEP사이의 간격이 통상적인 외관보다는 크지 않다는 주장인 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스탈린의 실제노선, 부하린의 대안, 좌파의 대안 이 모두가 러시아의 낙후된 전근대적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대안은 러시아 문화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이 문화는 동시에 러시아에서의 시민사회의 형성이라고 하는 근대적 과제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로크(John Locke)가 지적하고 있듯이 개인의 시민사회에의 참여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이 상호 보존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만 시민사회의 가장 큰 목적이 존재한다.<sup>28)</sup> 그러나 정확하게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짜르 전제정 붕괴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도 이러한 시민사회적 질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볼셰비키의 세계관에서는 시민사회는 형성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러시아에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타도의 대상이었다. 전근대적인 전제정에서 시민사회를 건너 뛰어서 고도의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볼셰비키들의 과제였다.

볼셰비키의 이러한 신념과 러시아 전통의 결합은 대단히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 메카니즘을 소련에 생겨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N. Berdyaev의 지적은 옴다할 가치가 있다.

27) "Political Testament of Lenin and Bukharin and the Meaning of NEP", *Slavic Review*, Summer 1991.

28) J. Locke, *The Second Treaties of Government*, edited by T. Peardon, (New York: The Bobbs-Merrill Company, 1952), p. 71.

불세비즘은 러시아의 인민에게 로마법적 재산관념과 부르조아적 덕이 결여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잘 부합되었다. 그것은 또한 종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러시아적 집단주의에 잘 부합되었다. 불세비즘은 러시아 인민 사이에 가부장적 생활이 붕괴되고 있고 기존의 종교적 믿음이 해체되고 있음을 이용하였다....러시아적인 정신은 회의주의에 어울리지 않으며 회의주의적 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적 정신에 맞지 않았다. 인민들의 정신은 쉽사리 하나의 통합된 신념에서 다른 통합된 신념들로 옮겨갈 수 있었으며, 생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정통주의에서 다른 정통주의로 쉽게 옮겨갈 태세가 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옛 중세에서, 세속화와 같은 새로운 역사, 자유주의와 같은 문화의 다양한 분야의 분화, 개인주의, 부르조아지와 자본주의의 승리같은 것을 회피하고 새로운 중세로 옮겨갔던 것이다.<sup>29)</sup>

소련을 통하여 성립한 '새로운 중세'에는 중세적인 사회 정치적 구조와 아울러 전쟁을 통하여 형성된 전시적 규범들이 첨가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소련의 '새로운 중세'에서 어떠한 역동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동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성을 통하여 서만 소련사회는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소련에서의 이러한 역동성은 새로운 사회정치적 체제(socio-political system)를 창출해 내었다. 소비에트의 새로운 권력이 창출되고 분배되고 유통되는 것은 이 체제를 통해서다. 이 체제는 당과 사회의 구분 및 당에 대한 사회의 종속을 통하여 제정시대의 관료와 인민의 구분 및 복속관계를 분명하게 재현한 것이었다. 당이 사회에 대립되는 관료체제이며 입법 및 행정 사법과 같은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와 같은 영역이나 나아가서는 도덕적 훈육까지도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제정시대의 전제성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체제에서는 권력의 생산과 분배가 훨씬 더 역동적이었다.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전쟁, 그리고 숙청과 처벌을 통하여 사회는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유동속에서 소비에트적인 권력은 그 근원을 찾아 내었다. 당은 사회의 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끊임없이 전시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렇게 하여 형성된 권력은 당이라는 관료체제를 통하여 분배되었다.

이 체제의 작동법칙에 순응하는 자는 그만큼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이 작동법칙을 변경하려면 그만큼의 실패의 가능성을 더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체제는 전혀 근대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하린의 입장에서 그가 비록 노동자 농민의 smychka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는 양 계급이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당의 전일적 지도,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29) N. Berdyaev, *The Origin of Russian Communism* (Glasgow: The University Press, 1937), pp. 169-170.

보조적 세력으로서의 농민, 노동자-농민 블록 내에서의 시민적 평화가 부하린이 구상하고 있는 질서였다. 이 구조 하에서 당은 사실상 새로운 리바이어던이었다. 당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윤리는 당에 대한 비판을 봉쇄시켰으며 따라서 어떠한 것이든 당장치를 통과하면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윤리는 부하린 뿐만 아니라 프레오브라젠스키같은 좌파 이론가들도 역시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 사회정치적 체제는 대단히 여과적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강력한 신분적 질서와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부하린은 이 체제의 장치를 가지고 좌파를 분쇄하는데 이용하였지만 곧 그는 스탈린에 의해 조종되는 이 체제의 희생물이 되었다.

물론 부하린의 사상 내에는 이 사회 정치적 체제의 작동법칙을 바꾸려 한 시도가 엿보인다. 특히 스탈린과 그의 균열이 분명해진 1928년 이후 그는 이 사회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그가 신봉하던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배치됨을 보았다. 그의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이 작동법칙에 순응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은 좌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이 체제는 마르크스주의의 틀 내에서는 설명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좌우파는 접근점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스탈린이 이 체제의 작동 메카니즘을 다루는 데에는 더 적합하였다. 그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본능과 감각으로 이 기계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소비에트적 욕망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오히려 부하린은 충분히 정형화할 수가 없었다. smychka의 관점은 소비에트적인 긴장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가 못하였다.

근대의 정치이론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시민적 평화를 지상의 덕목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전쟁을 덕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이 점에 있어서 다소 모호하다. 시민적 평화에 대한 전제와 마르크스주의 계급투쟁의 노선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상으로서의 공산주의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마르크스주의는 불가피하게 전쟁의 이론이다. 그러나 정치를 통하여 전쟁을 다스리려고 하였다. 레닌을 비롯한 지도자들도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는 격언을 신조로 삼고 있었다. 전쟁과 정치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통찰한 이 격언은 정치 속에 전쟁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에 이르게 되면 이 격언은 '정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 되어버린 것 같다. 스탈린식의 통치는 계속 전쟁적 긴장을 유지함으로써만 가능했다.

부하린에 있어서도 이 양요소가 모두 고찰된다. 그러나 상호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소비에트의 성립 이후에는 부하린이 민주주의적이고 시민적 평화에 대한 선호에 의하여 일단 전쟁의 종식을 인정하고 정치로서 사회를 다스리려고 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계급들은 아직 남아 있으며 계급투쟁은 잠시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기의 사회는 비록 대립적이기는 하나 일정한 단결성(edinstvo)이 있다.<sup>30)</sup>

이러한 입장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점에서 부하린의 입장은 시민적 정치공동체의 수립에 보다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하린의 양가적인 입장은 그러나 그의 대안도 역시 반시민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볼셰비키적 담론을 견지하는한 회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IV. 맺 음 말

1920년대에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를 중심으로 부하린이 전개한 이론은 소련 사회주의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시점에서 부하린을 보는 것은 스탈린에 의해 억압받았던 한 볼셰비키를 보기 위해서는 아니며 더구나 부하린의 이론이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가 부하린적 대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그 역사적 유효성은 1920-30년대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부하린이 볼셰비키인한 그의 담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타당성 혹은 사회적 인정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 부하린에 대해 내리고자 한 평가는 역사적인 평가이다. 1920-30년대에 소련이 실제로 걸어간 길이 부하린이 걸어가고자 한 길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부하린적 대안이 역사적 가정에 불과할 따름이기는 하지만 만일 선택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가를 검토하는 데에 본고의 의의가 있었다. 소련 사회주의가 성립하여 그 역사적인 동력을 발휘하던 1920년대와 이미 소련 사회주의가 역사적인 실험으로 끝나고 완전한 몰락으로 귀결된 현 시점에서 부하린 이론의 의미를 검토하는 데는 당연히 많은 관점의 차이가 동반된다.

본고는 그러한 점에서 우선은 부하린의 이론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다음에는 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소련사회의 가능한 정상적인 길—그것을 합법칙적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을 시민사회에로의 도달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부하린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30) "Zametki Ekonomista", *Puť k Sotsializmu*, s. 337.



부하린의 이론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부하린이 소련이 실제로 취했던 스탈린의 노선보다 민주주의적 질서에 부합한 이론이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같은 평가는 부하린이 볼셰비키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하린의 이론이 가지는 의의는 러시아 사회주의의 반동적인 성격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부하린의 사회주의는 볼셰비즘의 '중세적' 또는 전체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분명한 재동을 걸고 있었다. 부하린의 이론이 현실적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에 후에 고르바초프에 의해 시도된 페레스트로이카 같은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며 소련사회가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큰 고통없이 시민사회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양사회가 걸어온 일반적인 길· 그것을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이라고 이해할 때—을 감안하여 볼 때 부하린의 이론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볼셰비키적 담론 때문에 결국 시민사회에 배치되는 이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볼셰비키 담론은 담론속에서 개인주의, 재산권의 존중과 같은 시민사회의 구성에 필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있었다. 모든 담론을 계급주의로 해석하고 환원시키는 것, 개인 소유에 대한 존중의 결여 내지는 경시 이것은 부하린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충실한 볼셰비키의 일원이었던 동시에 역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소련 사회주의가 볼락한 21세기의 문턱에서 부하린의 대안을 평가해 볼 때 우리는 결국 소련 사회주의가 시도한 역사적 도전이 그 여러 대안에도 불구하고 잘못 시도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The Problem of Bukharin Alternative on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in the 1920s

Hee-young Kwon

The Bukharin alternative on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became one of the interesting problems in the middle of 1980s. This was due to the perestroika initiated by Soviet leader M. Gorbachev. Many placed their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P and perestroika. And naturally, Bukharin attracted attention of many historians because he was the most able theoretician of the NEP.

But particular concern must be paid to the fact that Bukharin was one of the Bolshevik leaders. The Bolshevik leaders dreamed of an utopia which could jump over capitalism and liberalism. They also dreamed of the liberation of the proletariat. Their super-reason tried to construct a new civilisation called socialism. In fact, their efforts resulted in the construction of a totalitarian

society which was no better than tsarist Russia.

Bukharin was one victim of this new totalitarian society and also he was responsible to the formation of this society. Certainly he was the most open-minded among the Bolshevik leaders. His alternative could have led Soviet society to more humane democratic civil society. His alternative could reduce the cost to the minimum which was necessary for the transition to civil society. But he did not abandon Bolshevik discourse which had tendency to restrict civil liberty. Also as being marxist, he could not totally surrender to Stalin's totalitarian thoughts. But as much as Soviet mentality fitted with Stalin's thoughts, Bukharin's defeat was predictable. The defeat of Bukharin alternative meant the loss of good chance of constructing socialism via civil peace. This dismissed also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of Soviet socialism to modern civilisation.